

전북기업, 지난해보다 2곳 늘며 전국 순위 꺾충

2024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10개사, 눈에 띄는 성과... 지역 경제 활기

전북의 대표 기업들이 올해 국내 1000대 기업 순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11일 발표한 '2024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전북지역 기업현황'에 따르면,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총 10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개사에서 2곳이 증가한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의 순위도 14위에서 12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대표 금융자주사인 (주)JB금융자주가 눈부신 성장세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10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JB금융자주는 국내외 수익모델 다각화와 자회사들의 안정적 성장에 힘입어 무려 571계단이나 뛰어오르며 972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해 순위에서 탈락했던 (주)세아씨엠과 미원스페이스티캐미칼(주)이 화려하게 재진입하면서 지역 경제계에 더욱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전북 1000대 기업의 총 매출액은 9조

3,5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늘었다. 기업 수가 증가한 덕분이지만, 전국 1000대 기업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8%에 불과해 지역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소재자별 분포를 보면 전주는 4개사, 익산·군산에 각각 2개사, 완주·부안에 각각 1개사가 자리하고 있다. 업종은 금융업(3개사), 식품·화학 제조업(각 2개사), 자동차·금속·종이 제조업(각 1개사)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 조사 결과, 국내 1000대 기업의 73.9%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으며, 영남권(14.9%), 충청권(6.7%), 전라권(3.5%)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북 기업이 1000대 기업에 늘어난 것은 매우 값진 성과"라면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전주상공회의소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제2회 전북 기업사랑 사진·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기업과 근로자의 따뜻한 일상, 한자리에

전주상의, 제2회 전북 기업사랑 사진·동영상 공모전 성료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전주상공회의소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제2회 전북 기업사랑 사진·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기업과 삶의 현장', '기업과 근로자의 일상', '노사협업의 현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진과 동영상 부문에서 총 8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1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으며, 각 작품마다 현장의 생생한 순간과 감동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사진부문 대상은 (주)판능 김상태 반장의 '현장 작업 사진'이, 동영상부문 대상은 (주)풀무원 다는 최인평 조장의 '4대 안전수칙 캠페인'이 차지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으로는 사진부문 김도기님의 '한뼘 한뼘', 동영상부문 이석호님의 '우리 모두가 기업의 주인공이다'가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도 알에프세미 등 다수 기업 근로자와 도민들이 입선작으로 이름을 올려, 전북 기업과 근로자의 진솔한 삶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주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추석 중소기업에

150억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추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명절 전후 집중되는 인건비·납품대금 등 단기 자금 수요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지원 한도는 기업별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전북도 또는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북도는 기업 부담금리의 2%를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해 금리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기반의 도내 공장 등록 중소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로, 신청 희망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 시스템 (<https://jok.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불가하다.

윤여봉 원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며,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기업들에게 실질적 숨통을 틔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소공인·외국인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 경청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첫 전북 찾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았다. 11일 하루 동안 이어진 전북 방문 일정은 중소기업의 인재난, 소공인의 성장 고충, 외국인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까지 지역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직접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장관은 특유의 따뜻한 소통 행보와 날카로운 정책 진단으로 지역 경제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첫 일정은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중

소기업 연구인력 매칭데이'였다. 이 자리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 중소기업과 연구자의 길을 찾는 청년들이 직접 만나 교류하는 뜻깊은 장이었다. 행사장에는 25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과 활발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북대 진수당 로비는 청년들의 열기와 기업인들의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한 장관은 행사에서 "전북 청년 연구자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찾고,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과 청년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후 열린 AI·R&D 인력 양성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문가 기업 대표, 연구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에서 수도권 기업보다 두 배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R&D 인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장관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 △AI 인재 채용 전용 트랙 신설, △기업 현장 실무 중심의 OJT(On-the-Job Training) 기반 제조 AI 인력 양성, △지방 중소기업 대상 연구인력 지원 물량 확대 등이다. 장관은 "실현 가능한 제안은 속도감 있게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도로공사 전북본부, 냄새 없는 '휴休 분리수거장' 대폭 확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휴게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도민과 이용객들에게 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선물한다. 전북본부는 11일 지난해 정읍(천안 방향) 휴게소에서 시범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휴休(휴휴) 분리수거장'을 총 9개 휴게소로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존 휴게소 쓰레기장은 비가림 시설이 없어 비에 젖고, 분리되지 않은

생활쓰레기가 봉지째 버려져 악취를 풍기며 이용객 불편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음식물 찌꺼기와 음료 잔여물이 뒤섞여 위생 문제가 심각했고, 휴게소 운영업체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북본부는 지난해 말 정읍휴게소에 처음으로 '휴休 분리수거장'을 도입했다. 이 시설은 △비가림 지붕과 밝은 조명, 미끄럼 방지 타일 바닥

로 청결성을 강화하고, △세정대와 대형 수거함을 갖춰 이용객 편의를 높였으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쓰레기통을 한곳으로 모아 주변 환경을 산뜻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시범 운영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분리수거율은 29%에서 43%로 약 50% 가까이 향상됐으며, 처리비용도 25%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휴게소를 찾은 이용객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오상근 기자

ESS 구축 등 전북 발전 핵심 과제 촉구

전북건설단체연합회, 국회 방문해 지역 건설산업 현안 건의

전북지역 건설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역 건설업계가 발 벗고 나섰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주요 현안을 건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소재철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장단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승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건설산업의 절박한 현실을 전달했다. 회장단은 "공사 물량 감소와 공사비 부족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심각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으며, 이는 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 경제에서 건설산업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 대



상지 선정 시 전북 업체 참여 보장 △새만금 핵심 SOC 사업 예타 면제 △전북 광역권 SOC 핵심과제 반영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국도 건설 조속 추진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소재철 회장은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